

금요 수필

겨울 소나무

만경강 맑은 고모는 팔을 벌리고 반갑게 웃었다. 고모가 사는 마을은 단장강 농로를 따라가다가 낮은 산 밑 마지막 골짜기에 살았다. 산에 오르면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모 집은 담뱃 우체부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대문은 대나무로 일기 선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쉬게 덜 경계했다. 방에 들어가니 푹푹한 냄새가 났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방은 낡은 내려앉은 것 같은 야수야수한 집이다. 냄새는 벽인지 장판에서 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부엌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방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천장에 매단 청국장 배새였고, 간이로 지은 집에서 우선 살고 있었다. 고모는 서해 개펄에서 캐 온 조개로 삼을 지켰었다. 미남봉지에 조개를 담으면서 갈 때 가지고 가라고 했다. 점심에 시큼한 김치, 따뜻한 찜질국수, 보리밥 한 덩이를 먹으면서도 욕심이 없었다. 아이들은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이게 행복이었다. 비록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이고 사는 즐거움을 알았다. 오는 길에 애들이



정근 수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커서 뽕뽕이 객지에서 살고 있다.

오늘, 새단장 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 도로는 전국 길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원주군 상귀면을 잇는 총연장 55.1km의 왕국 4차 도로다. 사업비가 2조7,421억 원이 투입되어 7년 8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그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드디어 개통되어 감회가 깊다. 특히, 협치 모양을 본뜬 김제휴게소는 인상적이었다.

고모가 사시던 마을이 차장 밖으로 보였다. 마을을 보니,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금방이라도 환하게 웃으며 쉬었다 가라고 반갑게 웃는 것 같았다. 이제 고모가 되

었지만, 웃으면 이금니가 살짝 보이며 고모의 얼굴이 그리워진다. 산다는 것 별거 아니다. 그때는 몰랐다.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 저녁에 명석에 누워 하늘에 공원을 만들었다. 공원은 보름달도 심고 별을 따다가 나무의 정원을 따놓았다. 그때, 가장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다음에 더 가꾸어 왔다.

가을에 국화와 들꽃 꾸리를 몇 개 업어와 화분에 심었다. 생명의 뿌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다. 알뜰에 다시 화단에 심어야 한다. 겨울 소나무 밑에 자라는 국화는 지금도 눈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고 있다. 봄은 아픔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어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봄은 흙으로 밟은 시다. 시는 언어로 밟은 가

장 강력한 문장으로 태어난다. 누구나 생각의 길은 같다. 후어 그것이 아들이라면 고통을 수반한 미래를 꿈꾸는 기다림의 산물일 것이다. 사는 게 그렇다.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난, 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글 쓴답시고 남은 뒷전이고, 나한테 정신이 팔려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다. 글 쓰는 사람이 남에서 그 사람의 체취가 있고, 그 사람이 걸어온 자취가 선명해야 한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 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행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세운다. 때로 사회적 사정감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병행 있는 글을 써야겠다. 고모처럼 욕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지극처럼 글을 쓰며 위로 앞에서 속어갔다는 어느 작가의 다짐처럼 정갈하게 살고 싶다.

\*문단경력 - 수필과 비평 등단. 덕진문학회장 역임, 작문 예술문학상 수상, 전북문인협회 회원, 국제펜 전북위원의 회원

\*저서 - 시집: 가을꽃 줄 꽃이보고, 수필집: 삶이 묻어있는 포구

사설

젠슨 황의 'AI 종말론' 비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기술업계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종말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지난해는 서사 전쟁의 해였다며 저명 인사들이 종말론적 서사나 과확소설 같은 서사를 퍼뜨려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다.

황 CEO는 전체 메시지의 90%가 종말론과 비판주의라며 AI를 더 안전하고 더 생산성 있으며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만드는 투자조차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규제 포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포화이란 규제기관이나 입법자가 규제해야 할 특정 산업

이나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 CEO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술업계 인사들에 대해 "그들의 의도는 명백히 이해 상충된다"며 "그들의 의도는 최선의 사회 이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비즈니스인사이드는 황 CEO가 과거 AI가 초급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결실을 대체할 것이라는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의 예측에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최근 사회가 AI 콘텐츠를 '저질'이라고 낙인찍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거대 기술기업 수장들은 AI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지난해 무려 승객 등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여객기가 시속 232km의 속도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어느 국회의원이 항공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콘크리트 둔덕 충돌 당시 시속 232km로 분석됐다. 사고기의 평균 속도가 동체 착륙 지점에서는 시속 374km에 달했다. 활주로 마할 시작 지점 시속 374km, 둔덕 충돌 직전 시속 280km로 나왔다.

여객기가 동체 착륙한 뒤 30초 후 콘크리트 둔덕으로 된 로컬라이저에 부딪혔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평균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이었고 항철위는 예측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했다.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인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 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에 용역을 의뢰했다. 만약에 콘크리트 둔덕의 로컬라이저가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중상자 없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 받은 바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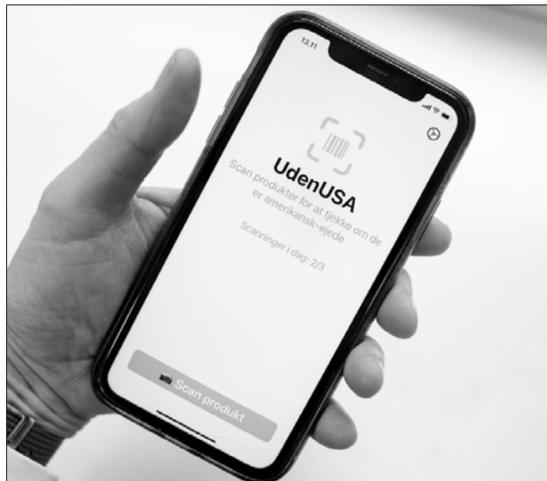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제품은 안살꺼야"



21일(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미국산 제품을 걸러주는 '우드아웃 USA'(덴마크어 udenUSA) 앱을 실행하고 있다.

연방 요원들에게 연행되는 미 시위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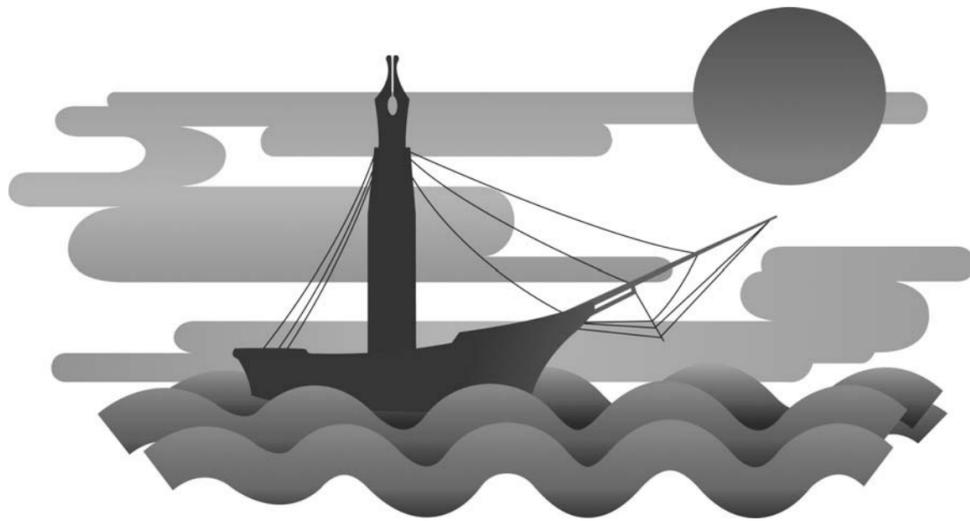
21일(현지 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이 반(反)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